

미얀마 김진명 선교사 선교편지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처음...

2002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께 처음 선교사로 부름 받던 때가 생각납니다. 무의미하게 살았던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을 알려 주시고는 제게 그길을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으셨지요, 저는 그저 그 말씀이 과분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새 생명에 눈을 떴고 새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의 길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2012년 비로소 주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사랑과 기도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교회인 용두동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선물' 후원회 가족들, 또한 재정과 기도로 후원하시는 후원자님들과 교회 모든 동역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미얀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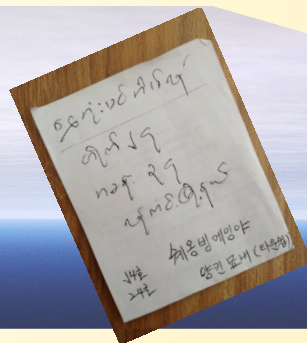
새로 태어나는 중

지금 미얀마는 여기저기 공사 중이고, 모든 시설과 시스템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많은 부분에서 개방과 발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젊은이들의 패션은 전통의상인 '롱지'를 벗고 청바지를 즐겨 입으며, 여자들은 미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자유로워 졌지만 복음에 대한 자유는 아직까지 피부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하루속히 선교의 문이 자유로이 열려지길 기대해 봅니다. 미얀마의 날씨는 점점우기가 일찍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월 중순부터 비가 오락가락하며 짐통더위 속에서 우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명의 말씀

눅 4:18.19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 12:1)”

미얀마 적응기...

한국에서 많은 사랑과 축복 속에 미얀마에 도착했지만 낯선 환경 속에서 약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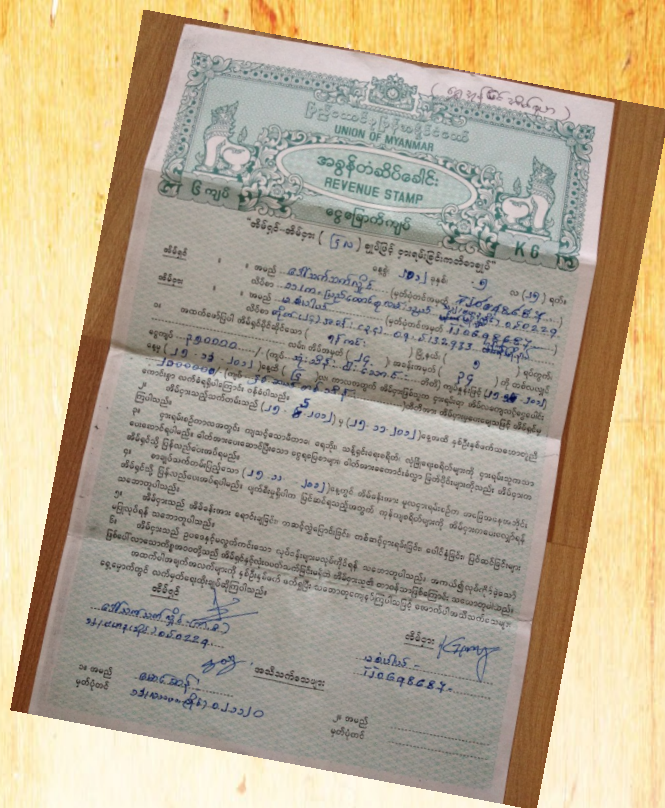
하루에 6시간 이상 전기가 나가고,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물갈이와 모기로 인해 혹독하게 미얀마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온몸은 두드러기로 가렵고, 모기는 연신 달려들고, 전기가 나간 상태에서 싸워야 하는 더위는 내 인내력에 한계를 드러내게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제 시간, 제 때를 지키는 것이 없는 규칙 없는 미얀마에서 돌아보니 그 동안 참 축복 속에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보냅니다.

오늘 전기가 들어와서 감사, 비가 잠깐 내려 더위를 잠시 식혀줘서 감사, 전기제품이 작동 되서 감사, 3~4 군에 들러 산 콘센트가 구멍이 맞아서 감사...

지나던 길에 와이파이가 터져 남의 집 앞에서 잠시 도둑 카톡을 즐기면서 감사를 합니다. ^^*

무엇보다 감사한 일은 두 배 이상으로 뛰는 미얀마 물가에서 하나님이 제게 삶의 터전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두 배로 올라가는 월세 탓에 이사를 가고들 있는데 제가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너무 비싼 임대료 때문에 들어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주인집은 집을 사서 자신들이 살려고 하다가 너무 층이 높아 다리가 아픈 탓에 팔려고 내놓았다가 팔리지 않자 현자인이 아닌 사람으로, 혼자 사는 사람을 찾던 중에 저를 만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제게 맞춰 두신 것이었지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얀마는 한국처럼 모든 것이 원하는 때에 오거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통하지 않는 언어의 답답함도 있지만 현지어를 잘 하시는 분들도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야 알아듣는다며 답답함을 표시하시는데 그것이 이 나라 사람들이 글을 많이 읽어보지 못해서 사고의 범위가 좁은 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말만 되풀이 하고 상대가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미얀마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미얀마를 품고 사랑하며 이곳에 복음화 되기를 바라며 이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기도가 열매로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이곳은 주님이 선택하신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MISSION REPORT

약속 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곳 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창 28:16,17)

1. MTI 신학교 개강예배...

2012년 6월 1일 용두동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미얀마 남감리교단 산하의 MTI 신학교 개강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모야 감독이 설교를 하고 전 감독인 소수웨감독도 함께 참석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는 싱가포르 감리교단의 후원자들과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올해는 **5명의 신입생들**이 들어오게 되어 모두 20명의 신학생들이 올해 공부를 시작합니다. 여러 곳 여러 종족 출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 들고 이 땅 미얀마를 누비는 꿈을 꾸어 봅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용두동 교회 남기정, 박순희 권사님 가정에서 헌당하시는 **나웅초 감리교회**의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의 나웅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만달라이, 비눌린을 거쳐 도착한 나웅초 감리교회에서 건축현장을 살펴보고, 건축하는 것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한 후 함께 동행한 ‘우 까옥센 목사님, 우 묘민 장로’ 와 그곳 사역자들과 함께 건축을 시작할 땅에서 **기공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현지인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돕는 이들을 붙여 주시고, 문제가 될만한 것들에 대해 세밀하게 정리하시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계셨습니다. 교회가 꼭 필요한 지역이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데 나웅초 교회가 잘 건축 되도록 공사관련자들과, 그곳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이 시작되면 한 달 정도면 완공된다고 합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다시 살펴 보러 갈 것입니다.



3. 한국어 강의를 시작합니다.

6월 15일 부터 매주 금요일 신학교에서 한국어 강의를 시작합니다. 언어도 안되는 제가 아이들과 만나는 귀한 시간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를 매우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뜻있고 좋은 교제의 시간되길 바라며, 더불어 저도 하루속히 미얀마어가 가능해 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지 않도록...

1. **처음** 미얀마에 도착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도 전에 만나야 하는 많은 일들 때문에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벌어진 상황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했고, 언어도 뜻도 전달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갈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뜻을 되새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애썼습니다. 보편적인 것이 아닌 저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 있을 지라도 늘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가 원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일에서 제가 멀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별력과 하늘의
지혜를...

2. **현지**에는 많은 소리와 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포장과 여러 모양으로 내게 다른 그림과 다른 소리들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어느 말에도 어느 소리에도 흔들리거나 위축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소리**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과 거짓은 하나님만이 분별하실 수 있으므로 상황 가운데 바른 판단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역자들이 세워
지도록...

3. **8월 6일**부터 12일까지 용두동교회 단기선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단과의 협력과 용두동교회와의 계획 가운데 선교사로서 잘 소통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이들과 동역자들**을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팀을 돕기로 예정했던 분들이 사정으로 모두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선교를 돕고 미얀마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세워갈 동역자들을 보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곳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준비하며 만나는 많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감당할 **일꾼들과 동역자들**을 만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언어연수에 지
혜와 명철을...

4. **이번 주** 부터 언어연수를 위해 학원공부와 시작합니다. 학교에 등록하기 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그동안 먼저 과외로 **언어연수**를 시작합니다. 믿음이 좋은 친족자매를 선생님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지혜와 명철로 선교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언어를 하루속히 습득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과 육이 모두
강건하도록...

5. **바뀐 환경과** 여러가지 생각 가운데에도 육적인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 안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지혜도 주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 육이 모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